

‘공부의 제왕’이 제안하는 효과적인 고교생 공부법

고1 글쓰기 병행해 책 많이 읽어라
고2 기출문제 풀어보며 수능 준비
고3 여름방학때 탐구영역 끝내라

학부모들이 2명 이상 모인 곳에서 대화 주제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뭘니뭘니해도 ‘아이 성적’이다. 최근 MBC에서 방영을 시작한 프로그램 ‘공부의 제왕’(매주 토요일 오후 5시35분)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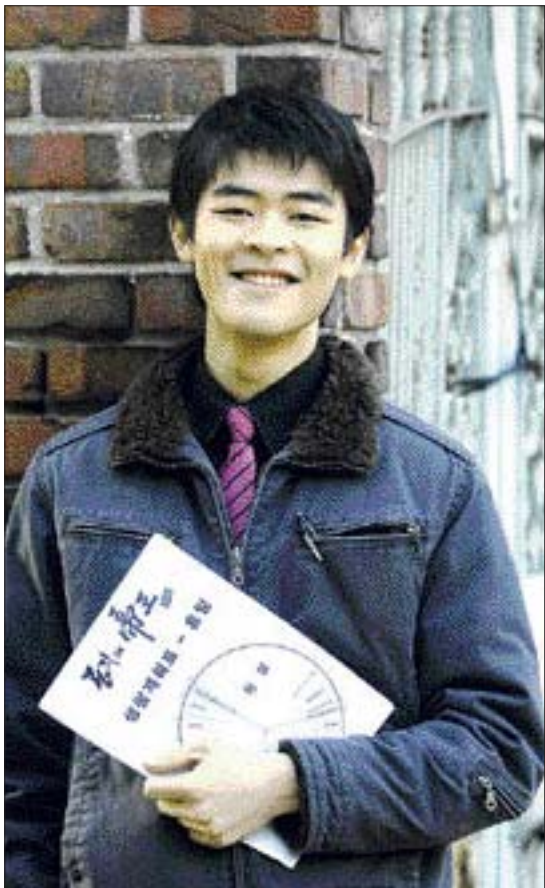
bc.com/broad/tv/ent/study/index.html)에는 시청소감을 비롯한 자신만의 공부법, 특정 과목을 잘하는 법 등의 의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프로그램의 MC 중 한 명인 강성태(24·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왼쪽 아래 사진)씨는 지난해 여름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공신닷컴’(www.gongsin.com)을 열어 ‘비법(秘法)’에 목말라 하는 학생들을 도왔다. 이들은 ‘공부의 신(神)’(중앙m&b)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기도 했다. 강씨의 도움을 받아 고등학생들의 효과적인 공부법을 알아본다.



MBC에서 방영 중인 ‘공부의 제왕’ 공동 MC인 개그맨 이윤석, ‘공신’ 강성태, 가수 김장훈(왼쪽부터)씨. 이 프로그램은 우등생이 후배들에게 공부 잘하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내용으로 학생 및 학부모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언어·수리·외국어영역 기초 다져야

고1 수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수리·외국어영역은 ‘바라치기’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과목이다.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단기간에 기초를 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세 과목은 늦어도 2학년까지는 잡아둔다는 생각으로 담벼야 한다. 혹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포기하는 글들이다.

1학년 때는 수능을 준비한다는 생각보다 내신에 충실하게 대비해야 한다. 착실하게 내신을 준비한다면 수능과 논술도 자연스럽게 준비가 된다. 고1 여름방학에는 공통수학을 복습하는 것이 좋다. 공통수학 교과서를 쭉 훑어보거나 문제집을 끝까지 한 번 풀어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된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1학년 방학 때는 언어영역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책을 많이 읽을 것을 권한다. 글쓰기를 병행한다면 금상첨화다. 외국어영역의 기초를 위해 기본적 문법 쌓기와 단어 외우기를 병행하고 배경지식을 탄탄히 하기 위해 고교생을 위한 철학·서양사 등의 책을 읽어주는 것이 좋다.

수학 문제집 한권 반복해서 풀어라

고2 본격적인 수능준비의 적절한 시기를 놓았을 때 대개는 고2 겨울방학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해진 시기가 있더라도 이르면 이득이 크다. 고2 때 중요한 것은 내신 다지기다. 수학의 경우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와 예제, 개념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고3 때 당황하지 않는다. 문제집 한 권을 반복해서 풀어 유형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

수학 탐구영역에 대한 공부도 해야 할 때다. 1년 동안 배우기에 과학이나 사회탐구영역의 과목들은 그리 많은 양이 아니다. 2학년 때 확실하게 해 두면 내신 관리에 물론 3학년 때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고2 겨울방학에는 실력을 얼마만큼의 수준에 올려놓지 않으면 고3이 된 뒤의 학습 방향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짚는다. 이 기간 동안 1~2학년에서 배운 것을 총정리 차원의 복습을 해두고, 각 영역의 기본을 짚어주는 인터넷 강의나 전문 학원에

등록해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수능은 이렇게 출제되는구나’하는 식의 감을 잡도록 한다. 각 과목별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출제의도와 수능의 전체적 마인드를 익혀가야 한다.

학교수업 소홀히 해선 절대 안돼

고3은 새해 3월2일, ‘짠’하고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2 겨울방학 때 준비했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장기 레이스 체제에 돌입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끈기다. 교사가 흔히 말하는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 점수”라는 말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고3이라고 해서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따로 수능을 준비하려 한다면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 4시간도 안되며 효율도 낮다. 고3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인 6~7월까지의 수능 문제풀이에 필요한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외국어영역은 다양한 지문을 접해 익숙하게 만들고, 수리영역은 문제집을 통해 부족한 개념들을 정리해나간다. 탐구영역은 수업을 최대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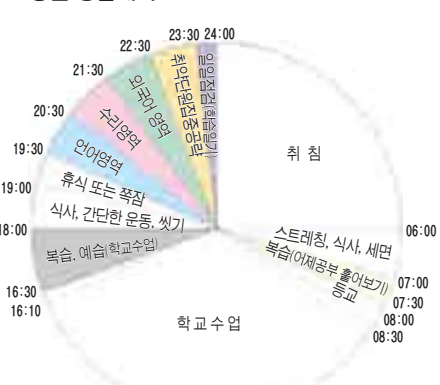
고3 여름방학 때는 3학년 1학기를 위해 세웠던 계획 중 소홀했던 것을 채우도록 한다. 특히 탐구영역의 보충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방학 때 일단 끝낸다는 마음가짐으로 담벼야 하는 것이 좋다. 방학 동안 최대한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9월에는 여름방학 때 발견한 부족분을 점검하고 문제를 푼다. 6월과 9월 모의고사를 분석하고 주중에는 실전 감각, 주말에는 개념정리 등의 시간 안배로 수능을 준비한다.

(사진=MBC 제공)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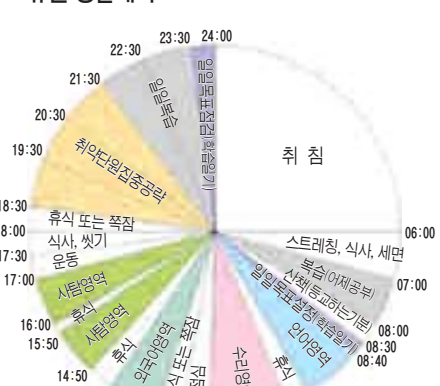
‘공부의 제왕’ 추천 생활계획표 짜기

1시간 학습, 45분 공부·10분 휴식·5분 복습

평일 생활계획표



휴일 생활계획표



① 시험시간에 맞춰 주요 과목을 공부한다=휴일의 경우 오전 8시40분에 공부를 시작해, 언어·수리·외국어·탐구영역 순으로 지속한다.

② 기상 한지 2시간 후에 뇌의 활동이 활발해진다=시험 시작 시간은 오전 8시40분이므로 2~3시간 전인 오전 6시에 기상하는 것이 좋다.

③ 45-10-5 법칙=45분 공부, 10분 휴식, 5분 복습을 통해 1시간의 학습을 완성한다. 잠이 들기 전 하루 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한다.

④ 아침에 기상과 함께 전날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린다=공부했던 내용은 일주일 후, 한 달 후, 6개월 후 3번 복습을 통해 반복한다.

⑤ 방과 후, 식사 후의 짧은 휴식이나 쪽잠=잠을 줄여서 공부하는 것은 쉽게 피로해지고 계획을 포기하게 한다. 깨어있는 낮 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학 잘 이용하려면

- ▲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무조건 계획을 짜라.
▲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학원이라도 가라.
▲ 수학 기분이 한 권은 통으로 뚫는 생각을 가져라.

대인동상일부동산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울렷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첨단월계공인중개사
★급매★
●월간 인근 비아동 일반 주거지역 1000평 대세대주택, 물류창고, 복지실비시설
●월간 중심상업지역 1100평 주·상 복합시설적합

부광공인중개사
전원주택(부지) 전문업소
전원주택단지 분양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

특급상가 매매·임대
복구 용봉동 투룸 상가주택
대전후론 노래방 215㎡(65평)
대전후론 대로변 1층 166㎡(50평) 상가

법원경매 전문회사
-불 앞서는 사람-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인정장인) 상담전화 : (062) 222-8446

금보부동산컨설팅
토지매매
건물매매
상가주택/주책
공방
아파트

BM 公認仲介士 事務所
부동산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내내 의심하는 최소한 3개월간의 전매주식회사.
모바일: 010-7288-4351

부동산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내내 의심하는 최소한 3개월간의 전매주식회사.
모바일: 010-7288-4351

부동산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내내 의심하는 최소한 3개월간의 전매주식회사.
모바일: 010-7288-4351

부동산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내내 의심하는 최소한 3개월간의 전매주식회사.
모바일: 010-7288-4351